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 신용회복위원회
	보도	2019.1.17.(목) 15:00	배포	2018.1.17(목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담 당 자	정태호 사무관(02-2100-261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이준교 팀 장(02-3145-7455)
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(02-3145-6770)		박형근 팀 장(02-3145-6773)
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정용걸 팀 장(02-3145-7447)
	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민 영 안(02-750-1071)		이두훈 선 임 (02-750-1074)

제 목 : 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」

□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」을 마련하였음

※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

○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(법원장 : 이경춘)과 신용회복위원회(위원장 : 이계문)는 금일 ‘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’에 관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함

<서울회생법원-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>

◇ 일시 및 장소 : 2019년 1월17일 15:00, 서울회생법원

◇ 체결주체 : 서울회생법원(법원장 : 이경춘) - 신용회복위원회(위원장 : 이계문)

※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

◇ MOU 주요내용

-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

※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

-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“도산전문법원인 서울 회생법원 출범(17.3월)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·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”고 언급하며 서울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,
- “금번 협약(MOU)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”한다며,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

◇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「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」 중 「② - ⑦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」의 후속 이행조치임

첨부 1. 「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」

첨부 2. 김용범 부위원장 축사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